

觀光學의 궁극적 關心과 提言

孫 大 鉉

(漢陽大 觀光學科)

1. 觀光學의 本質과 궁극적 關心

B.C. 5 세기경에 기록된 聖經의 創世紀 2 장에 나오는 安息(Sabbath)은 창조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 휴식의 전형이다. 레저 연구의 권위자인 J. Huizinga 는 인간의 본능을 ‘놀이하는 人間(homo ludens)’이라 간파하였고, 인간 본성 속에 있는 遊戲的 要素, 즉 놀이(play)는 生物學的(先驗的)·文化的 普遍 요소이므로 놀이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다. Socrates 아래 많은 哲人們은 哲學과 文化를 ‘餘暇의 產物(product of leisure)’이라고 하였다. 餘暇 概念은 Aristotle(B.C. 348~322)에 의해서 개발된 自己啓發의 意味로 고대 그리스에서 생성되었으며, 당시 여가의 해석은 진리와 자기 이해를 추구하는 뜻을 내포하며 美美的·心理的·宗教的·哲學的 思索의 行為이었다. Plato에 의하면 思考하는 時間, 思索, 哲學 및 自己啓發은 幸福을 위해 필요한데 이러한 시간을 여가라 하였다.

여가는 시간이나 行為 속에 있는 것, 즉 所有 라기보다 餘暇 遂行者(leisure actor)의 存在의 狀態, 즉 마음의 態度, 靈魂의 條件이란 관점에서 볼 때, 무릇 모든 사람은 自由 時間(free time)을 가질 수 있으되 아무나 여가를 누릴 수는 없다. 여가 자체는 快性格을 띠며, 內在的 滿足을 강조하고 또한 사람의 성격에 德을 쌓을 뿐만 아-

니라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 水源이기도 하므로 여가 시간은 民主主義를 실현 가능케 하는 이데아이다. 그리스의 여가 영향은 schole(leisure의 파생어)란 술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은 영어 school의 기원으로 ‘餘暇와 教育’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며 schole는 學的追求란 의미로 쓰여졌다. 따라서 school의 ‘知的 遊戲’, ‘觀念의 遊戲’가 허락된 思想·哲學의 提供處와 관련된 여가의 真意는 物質的·商業的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政治的 手段의 侍女로 전락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구에서는 11 세기 후반부터 12 세기초에 걸쳐 그리스도교의 발달, 즉 로마法王廳에 대한 ‘그레고리改革’은 갖가지 學問 興隆의 계기가 되고 批判精神의 생활화로 유럽 대학의 융성을 일으켰다.

觀光(tourism)은 中國 周文王 時代(B.C. 1134년경) 중국 古典「易經」에 기록된 “觀卦六四爻辭”의 ‘觀國之光’에서 유래하며, 일국의 정책과 풍습을 遊覽·觀察한다는 巡禮의 의미로 쓰였다. 現代 觀光의 眞面目은 도구적 생활과 생계 활동으로부터의 離脫이며 精神的·表現的·文化的 욕구들을 前面으로 부각시킨 다른 종류의 道德的 狀態로의 没入이며, 현대 복합 사회의 分化를 겨냥하는 일종의 儀禮이다. 인간은 1 차적으로 ‘衣食住’와 같은 慾望充足의 生의 본능을 추구하지만 결코 이러한 만족에 그치지 않고 그 바탕 위에서 좀더 ‘좋은 삶의 追求’와 ‘빛(光)의 發

見’，즉 ‘文化의 發見’을 마지막으로 확보하는 것이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경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는 날로 縮少되어 인간 사회의 多元性・多文化性・相互依存性이 提高一路에 있다. 觀光의 本性은 바로 이러한 ‘文化行動과 文化接觸 現象’이란 차원에서 한 인간 집단의 행동 및 사고에서 나타나는 生活樣式(life style)을 관찰 대상으로 한다. 人間性의 多色과 多音, 多彩性과 多形性이란 文化的 多樣性은 인류 생활의 香味料이자, 人類 家族의 상호 왕래를 위한 동기 부여를 하며 이 결과로 知識과 依賴, 經濟 發展도 도모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놀이, 여가, 관광은 真理, 自由, 民主化와 진밀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文化創造의 뿌리이다. 旅行觀光은 인간만이 누리는 일종의 特權이다. 이와 관련된 觀光學의 窪極的 關心, 즉 價值觀은 무엇인가? 그것은 처음 神에 의해 주어진 아름다운 인간 모습을 찾기 위해 ‘잃어버린 人間性回復’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餘暇 意識과 活動은 즐거움의 正體를 통한 인간의 純粹性(authenticity)을 찾는 探索이고, 여행은 世界化・國際化時代의 축메이며, 旅行하는 것은 世界人이 되는 길이며 觀光者는 전 세계 近代 價値의 傳達者라 말할 수 있다.

2. 觀光現象의 背景과 錯覺

J. Locke는 “모든 사람은 전능한 神에 의해創造된 것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平等하다”란 주장이 영국의 ‘市民革命’을 뒷받침해 준 정신적 배경이 되었고 이것이 급기야 自由, 平等, 機會均等 精神을 골간으로 하는 ‘프랑스 革命’으로 발전하면서 自由民主主義가生成하게 되었다. 18세기말 資本主義思想을 낳게 한 產業革命 그 이후 산업 사회로 진전되면서 여가의 증대・보급이 폭발적이었다. 觀光學은 現代人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학문으로 後期產業時代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19세기 중엽까지는 非產業化 단계이던 것이 1950년 이래로 觀光產業이란 용어가 등장하였다. 비근한 통계 수자를例示한다면, 1986년 國民觀光을 포함한 國際觀光의 총

소비액은 2조 불로 이 금액은 世界 軍備 9천 억 불의 두 배가 넘고, 1일 55억 불씩 消費되는 수자이다. 이 消費額에 交通 收入을 加算하면 40~50%가 더 추가된다.

오늘날 情報社會에서의 旅行 觀光은 情報經濟(information economy)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람(快・事業目的 旅行)은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하기 위해 여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이동을 통한 의사 소통은 통신과 인쇄 매체와 동등하게 情報의 運管이며, 어찌면 이 생성한 관광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의 基盤이자 정보의 頂上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社會의動物로서 인간은 고립해서 살 수 없다. 사회가 날이 갈수록 高度化・高密化・高速化 과정을 거치면서 ‘互惠와 互讓’은 多元社會의 持柱가 되었고, 과거에 잊혀진 忘却의 剩餘 개념으로 추상적 언사로 언급되었던 관광이 오늘날 구체적으로 國際主義・民族主義・經濟主義에로 變身하여 未來指向의 산업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원 전 1세기에 성립되었던 東・西洋의 架橋 역할을 한 Silk Road가 오늘날 관광 교류를 통해 世界의 一體化를 이루어 주고 있다. 그래서 地球 家族의 상호간 觀光觀察이 人間 文化生活을 위한 paradigm이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旅行 觀光事業은 문화교류 축진과 경제 발전의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활동은 일과 여가로 나눌 수 있는데, 產業革命을 맞이하면서 自由 時間, 餘暇에 이르는 出入口를 포함한 시간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現代 資本主義 사회에서의 생활은 주로 시계 바늘로 향해져 있고, 시간은 難과 等價關係로 보고 있으며, 화폐적 보상과 같은 시간은 하나의 귀중한 商品이요 產業化의 對象이 되고 말았다. 관광에 있어서의 특징적 현상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관광 활동에 있어서 生產이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自然資源이든 文化든 사람의 精神까지도 모두 값이 배겨져 販賣臺 위에 올려지고 商品化・市場化됨으로써 관광 가치의 본말이 전도되고, 관광의 가짜 사건(pseudo-events)이 활보함으로써 그 좋은 의미가 펴상적이고 천박하다는 인상을 받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관광 서비스 산업은 서비스 수출업체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近代化와 經濟發展에 과잉 접착한 나머지 모방과 자기 상실의 혼미를 거듭해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이 韓國답고, 韓國人다와야 되는' 우리의 正體性을 發見해야 될 때이다. 21세기를 맞아 국제 사회에서 韓國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에 '새로운 韓國像'을 건설하는데 있어 관광이란 수단을 지나치게 經濟的道具化로만 사용하지 말고 觀光固有의 精神과 價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높은 수준의 文化國家'의 大理想에 도달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메카니즘으로 '觀光'을 提案하고자 한다.

3. TCA/PASA 와 教育課程

1) TCA 와 PASA

17 세기말 英國의 성공적 市民革命과 18 세기 產業革命의 수행은 知識의 擴大와 여파를 물고 와 산업 분야에만 專門化·細分化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학문에도 細分化와 專攻機能의 專門化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103 개 大學에 설치 학과의 수가 415 종(1987년 3 월 현재)으로 이 속에 觀光學科와 같은 新種 學問이 포함되어 있다. 관광학은 社會科學의 한 분야로서 學名을 'tourismology'라고 부르는데 이 학문은 50 여 년 전부터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創始研究는 이미 美國에서 100 여 년의 歷史를 가지고 있다. 관광학 연구는 두 개의主流가 있는데 西歐 大陸에선 Tourism Economics에서 출발한 觀念과 抽象主義에 치중한 TCA(Theoretical Continental Approach), 英美 大學은 호텔과 觀光企業經營과 같은 經驗을 중시하는 微視經濟學의 接近 方法인 PASA(Pragmatic Anglo-Saxon Approach)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관광 현상의 多樣性과 複合性으로 인해 人類學, 法學, 地理學, 심지어 醫學, 環境學, 都市學 등 自然科學까지를 망라하는 그야말로 multidisciplinary, pluridisciplinary approach의 도움 없이는 연구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 京畿大學에 觀光經營學科가 설치

되어 4 반세기인 25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14 개, 大學院 6 개, 專門大 29 개, 高校 3 개에 재적 학생 수 9,320 명(고교와 대학원 수 제외)이나 되는 대단한 양적 평창을 이루었다. 이후고 1972년에 韓國觀光學會가 창립되었고, 1978년에 廣熙大 經營大學院에 최초로 관광경영학과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2) 觀光學科의 教育課程

뒤의 〈표 1〉은 서울 소재 京畿大, 世宗大, 漢陽大 등 3 개 대학 觀光學科의 教養, 專攻必須, 專攻選擇科目을 對比함과 동시에 McIntosh 教授가 분류한 觀光學教育의 지침을 사례로 인용한 것이다.

漢陽大의 교육과정은 人性教育을 위한 교양 과목(法定敎養, 共通敎養, 探索科目, 道具科目), 기초 교육을 위한 인접 과목, 그리고 전공 과목(學問指向의, 職業指向의 전공 교육으로 분류)이 學際的 連繫性과 有機的 系統化를 위하여 편성되어 있다. 開設된 총 학점 수는 152 학점이나 졸업 필수 학점은 140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그 중 70%인 98 학점은 必須學點이고 30%인 42 학점은 選擇學點이며, 부전공자를 위해 164 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전 과목은 觀光原論, 觀光事業, 飲食産業, 觀光資源, 觀光政策, 觀光外國語 등 6 개 영역으로 전공 과목을 분류하였다. 특히 관광학도에게는 탁월한 외국어 실력의 구비를 大前提로 하여 英語는 基本, 日語는 必須, 기타 외국어(中, 佛, 獨, 西)는 常識으로 갖추어야 되는데 4 개 국어는 필수 과목이다. 졸업 때까지 8 차 시험에서 Toefl 520 점을 획득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된다. 여기서 漢陽大 觀光學科의 전공 과목을 領域別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관광원론

관광학개론, 국제관광론, 관광조사, 관광심리학, 관광과 문화, 관광문화사, 관광사회경제학, 국제관광론

· 관광사업

관광경영론, 현장실습(I·II), 관광마케팅론, 관광회계학, 국제항공론, 여행업론, 관광경영

〈표 1〉 3개대 관광학과 교육과정 대비표

교양과목	전공필수	경기대(관광경영학과)		세종대(관광경영학과)		한양대(관광영화과)	
		전공선택	교양과목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과목	전공필수
국어 1	관광학총론 1	관광안내설무영어 2	영어 1	경제원론 1	E.D.P.S.	군사교육 1	관광일어 1
국어작문 1	관광자원론 1	관광안내설무일어 2	어학실습 1	경영학원론 1	관광법규 2	관광학개론 1	관광학개론 1
영어 1	호텔경영론 2	관광안내설무영어영습 2	한국사 1	경제정수학 1	호텔마케팅 2	한국관광지리 2	한국관광지리 2
영어연습 1	관광법규학 2	관광안내설무영어연습 2	체육 1	회계원리 1	관광영어회화 2	국제관광론 2	국제관광론 2
체육 1	국제관광론 2	호텔설무영어 3	교편 1	통계학 2	관광영어 3	관광영어회화 2	관광영어회화 2
군사교육 1	국민관광론 2	호텔설무일어 3	방어정책교육 1	관광학원론 2	컴퓨터언어 3	세계관광지리 3	세계관광지리 3
영어훈련 1	여행사업예론 3	인간관계론 3	자연과학개론 1	관광경영론 2	호텔업체무회계 3	관광통계학 3	관광통계학 3
전자계산 1	식당경영론 3	항공설무론 3	생활교양(여) 1	관광경영론 2	관광정책 3	관광파문화 3	관광파문화 3
제2외국어 1 (독, 르, 일, 중, 한문)	관광정책학론 3	호텔설무영어연습 3	교양선택 1 (교편 비대상자)	관광자원론 3	호텔업무관리 3	여행업무 2	관광도서론 3
국어 1	서비스산업론 3	호텔설무일어연습 3	출업논문 4	식음료판매 3	호텔업무관리 3	관광자원론 2	국제관광통신 4
자연계 1	호텔인사관리론 4	영어 1	현업설습 4	식당경영론 4	호텔관리회계 4	관광식음료론 4	국제컨설턴트론 4
사회계 1	관광마케팅 4	어학실습 2	관광설계 4	관광경영시스템론 3	국민윤리 2	관광설계론 3	국제관광론 4
영어 2	호텔회계 4	국민윤리 2	교편 2	관광정책 4	군사교육 2	현장실습 3	한국산업프로젝트 4
국민윤리 2	관광정책론 4	관광교통론 4	관광설계 4	관광경영 4	관광마케팅 4	관광설계론 4	국제관광론 4
군사교육 2	관광교통론 4	관광세미나 4	관광정책 4	호텔경영연습 4	중국어회화 3	관광개발론 3	한국어회화 3
전망교육 2	관광설무연습 4	여행사업영업연습 4	교양선택 2 (교편 비대상자 및 여학생)	관광사업론 4	관광영어 2	관광정책론 3	관광정책론 3
사회계 2	관광설무연습 4	관광선택 4	교양선택 3	관광설무연습 3	관광마케팅 4	관광마케팅론 4	관광마케팅론 4
인문계 2							
철학 3							

* 「대학요람」, 경기대 1986년, 세종대 1986~'87년, 한양대 1985~'88년.

** 한양대 교육과정은 매 4년마다修正됨.

시스템론

· 환대산업

호텔경영론, 환대산업프로젝트, 관광식음료론, 국제컨벤션사업론

· 관광자원

관광조경론, 한국관광지리, 관광시설계획론, 세계관광지리(I·II), 관광자원론, 관광자원 문제연습, 관광지역개발론, 관광도시론

· 관광정책

관광정책론, 관광법규, 관광관련법규, 관광개발론

· 관광외국어

관광영어회화(I·II·III·IV), 국제관광통신(I·II), 관광일어(I·II), 관광일어회화(I·II), 중국어회화(I·II), 스페인어회화(I·II)

美國 MSU 觀光學 著名 教授인 R. McIntosh 는 관광학과의 전공필수와 선택 과목(생략)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Four Basic Courses and Recommended Professional Electives

① Tourism Principle Course

History of Travel, Travel Motivation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Marketing, Planning and Development, Economics, Organization of Tourism, Research and Future prospects

② Marketing Course

Marketing Methods(World Tourism Distribution System 중심, Specialized Marketing(Travel Agency, Tour Company, Hotels and Auto Clubs)

③ Planning and Development Course

計劃과 開發에서도 중심 개념은 顧客指向의 이어야 함

④ Tourism Management

Management of Travel Agency, Tour Company and Public Carriers, Public and Private Tourism Organization(such as Convention and Visitor Bureaux)

4. 教育課題

우리나라 觀光教育이 실시된 지 4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훈련된 교수 요원의 부족, 관광학 연구의 方法과 對象에 대한 혼미, 교육 과정의 미흡, 非專攻者들에 의한 觀光學教育의誤導와 侵害, 교육 시설의 미비 등 허다한 문제를 안고 있다. 傳統·保守的인 學界는 이 신종 학문에 대한 新奇性과 편견으로 斷片的 分科學이라 보고 때로는 嘲笑的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여기서 현재 한국 觀光學이直面하고 있는 몇 가지 課題를 나름대로 정리해 본다.

첫째, 관광 현상의 요소가 너무 다양하여 다른 학문과 連接하는 부분이 많아 학문적 성숙을 져해받고 있는 것 같다. 아직 관광학의 conceptualization을 위한 共有하는 價值基準인 paradigm과 正體性, 研究方法論이 결여되어 이 분야의 大學教授들간에 共感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외국 관광학의 理論과 實際를 모방 및 직수입 하여 韓國的 觀光學의 토착화가 着根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東洋의 教育 방법이 一方的 傳受, 暗記, 注入式이라면 西洋은 對話, 討論, 辩證法, 批判的 訓練이 중심이 된 開發式이다. 관광학의 獨자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무작정 한 掘理主義, 暗記主義에 급급하지 않았는지, 말은 多學際의라고 하지만 과연 교수들은 학생에게 學習量을 충분하게 제공하여 진정로 관광학이 무엇인가 맛을 보이게 했는지,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고 리포트를 쓰고 세미나를 준비하게 하는지, 과목당 國·英文 複數 教材 외에 참고 도서를 몇 권 읽히게 하는지 등의 자성을 해본다. 大學을 나왔다고 다 같은 실력이 아닌 것처럼 一流大學을 選好하기보다 一流的 實力を 갖추어야 適者生存할 것이다. 치열한 학문적 경쟁 속에 사는 교수는 과연 얼마나 학생과 상호간 刺戟을 주고 받으며 密度 있는 講義를 제공하고 있는지 自問해야 될 時點이다.

세째, 우리나라 대학은 就職이 잘 되는 전공 분야, 金權指向의 學科에 人材의 偏在現象(paranoia symptom)이 심각하다. 實用的 價值가 높은 응용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일수록 도구

적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자적良心이나 良識의 문제와의 마찰이 별로 없이 企業體의 要求와 支援에 따라 자기들의 연구나 교수 활동을 조절해 나간다면 교수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學問的自由를 保障받을 수 있겠는가? 심지어 취업 알선을 위해 교수가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다. 많은 학생들은 배우는 것보다 社會進出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큰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必死의로 공부하여 자기 전공에 대한 철저한 意識化가 되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learn first, earn second'이다. 그리고 취업에 도움을 주는 教授의 原則은 '소크라테스의 產婆術概念'에 입각해야 한다고 본다. '산파는 아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성리에 따라 잉태한 여인으로부터 자연의 성리에 따라 이 여인이 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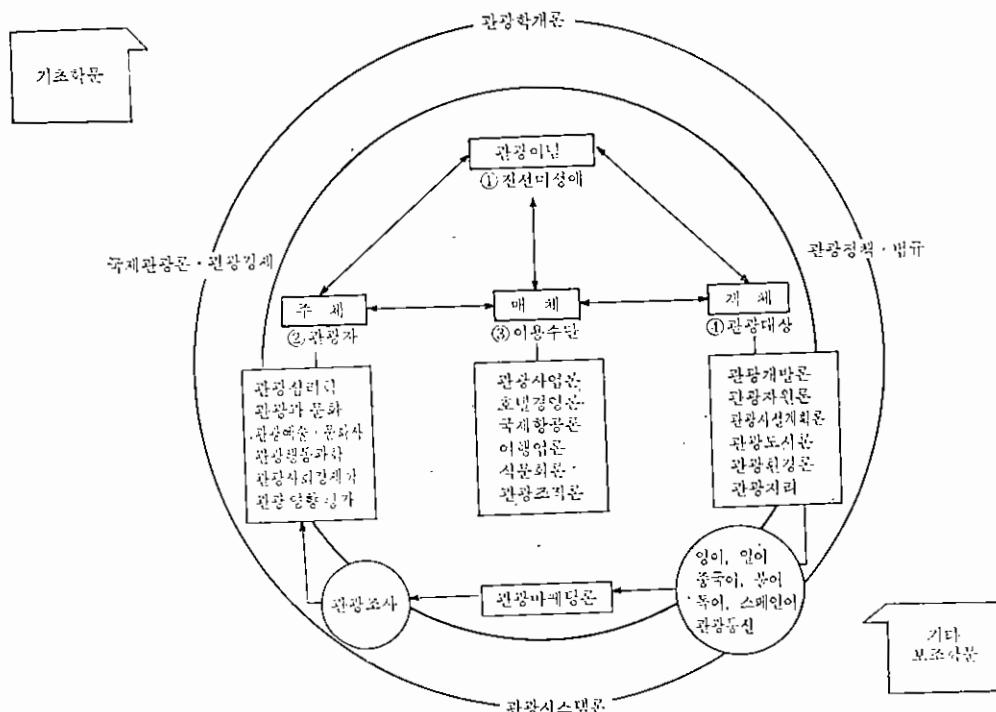
하는 것을 도움으로 마침내 玉童子를 끌어내는 것이다.

네째, 觀光에 대한 職業教育이나 理論의 體系化 작업은 공동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觀光理論이라는 것이 實際 문제 해결의 결과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또한 產·官·學과의 밀접한 관계와 협조가 필요한데 아직 이 삼자간은 孤獨과 疏外 그리고 매우 排他的 관계에 있다.

5. 提 言

관광학 교육의 사명을 '文化發展'과 '產業育成'이 어떻게 調和하고 共存할 수 있는가 하는데 교육 내용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보고 몇 가지 改善 方向을 提案하고자 한다.

〈그림 1〉 관광학의 체계 모형



* 관광학은 주로 ①②③④의相互作用에 관해 연구된다.

** ②와 ④를 연결하는 관광마케팅, 調査, 外國語 과목이 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觀光學概論, 國際觀光論, 觀光經濟, 觀光政策·法規, 觀光시스템론은 原論의 性格의 과목들이다.

*** 우리나라 대부분의 觀光經營學科는 ③의 媒體 중심의 學科目에 치중되고 있다.

1) 教育目標

관광학의 교육 목표는 認識과 四海同胞的인 人愛能力을 개발하되 투철한 奉仕(서어비스)와 寄與의 정신으로 아름다운 世界家族社會를 이루하고, 우리나라를 국제 사회에서 수준 높은 文化傳統 國家로 ‘새로운 韓國像’을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둔다.

2) 研究 對象과 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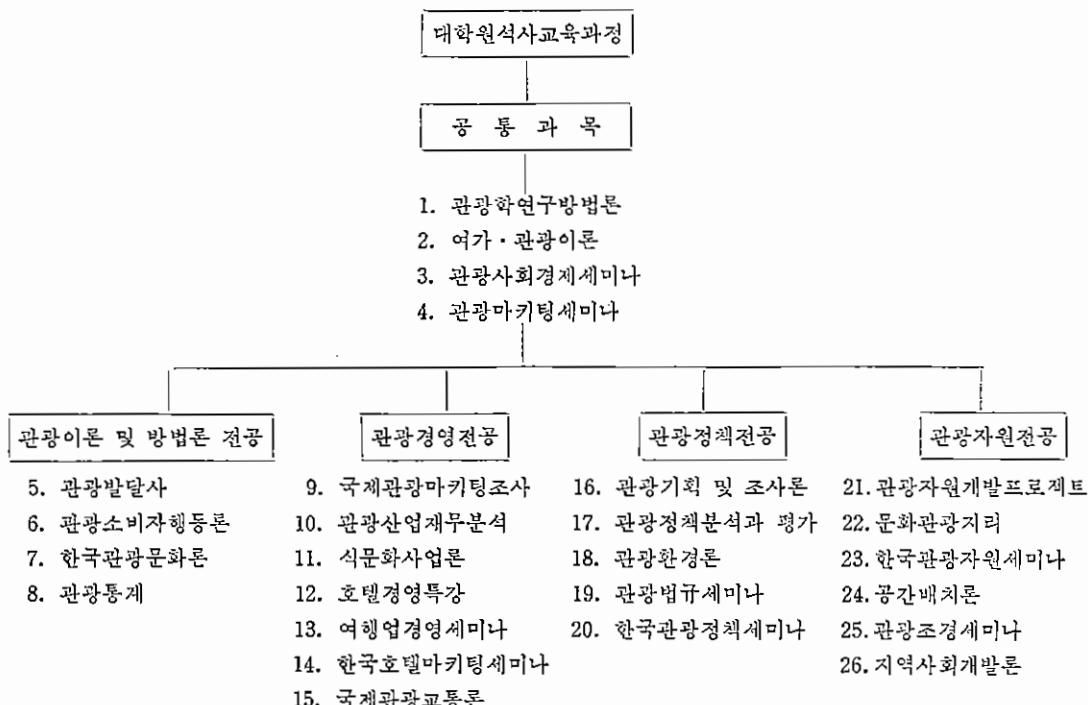
관광학의 다학제적 성격은 學的 理論 構成이 부진하고 소홀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외람되게 관광학의 確立을 위해 나름대로 對象과 方法을 提示해 보았다. 관광학의 思想과 哲學은 무엇인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餘暇 觀光은 眞理, 自由, 民主主義와 밀접하게 관계하며 이것이 文化創造의 근간이 되는데, 모든 이론의 배경은 이 哲學을 그 원천으로 삼는다. 관광학의 연구 대상은 다음에 후술하겠지만 觀光理念, 觀光 主體・客體・媒體에 두고 있으며 관광학의 研究 方

法은 感覺과 體驗法, 行動科學에 기초를 둔다. 인간의 사고는 直觀과 論理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J. Locke는 “思想과 知識은 經驗과 反省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K. Marx는 “感覺은 모든 科學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I. Kant의 純粹理性批判에 나오는 ‘感性(直觀)’ 또한 그러한데, 이 經驗(experience)은 實驗(experiment)과 同根인 準科學의 意味로 眞理가 自然科學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릇 創造라는 것이 관광학과 같은 다학제적인 異質과 異質의 결합에서 생겨나는데 이것이 創造開發의 原則이다.

3) 觀光學의 體系

관광학의 체계는 앞의 <그림 1>에서와 같이 ①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목표인 眞善美聖愛(眞善美聖愛이 아닌)의 인간성을 깨음미하는 觀光理念의 실현에 절대 가치를 두며, ② 個體의 動的追求心理를 바탕으로 하는 觀光 主體, ③

<표 2> 한양대 관광학과 대학원(석사) 교육과정



* 각 과목은 3시간 3학점 단위임.

* 이수 학점은 24학점 이상임.

自然과 文化 資源의 對象을 연구하는 觀光 客體, ④ ①+②+③을 매개 유도하는 觀光 企業體인 觀光 媒體의 相互作用에 定礎한 관광학이 될 수 있게 教育課程을 편성한다.

教育課程은 4년마다 정기적으로 들어 고치는 작업을 계율리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 수정 작업은 교수와 학생의 의견, 외국 대학의 추세를 수렴하되, 觀光學會에서 常設 '敎育課程研究會'를 두고 교육과정을 검토·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관광학은 응용 학문이기 때문에 2학년까지 基礎學問 분야의 튼튼한 기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하며 教養 공부도 전공이 앞서지 않는 교양은 無意味한 일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관광학 연구의 두 潮流 중 TCA와 PASA의 양자를 상호 결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관광학이 다학제적, 綜合 文化科學的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관광학과가 經營敎

育(14개 대학 중 2개대를 제외하면 모두 관광 경영학과임)에 과도히 편중되어 있음을 再考해야 하며 (외국에서는 우리식의 관광경영학과의 명칭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음) 전공필수 과목은 가능한 '基本的인 科目'으로 줄이는 대신 선택 과목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4) 大學院敎育과 文獻目錄 發刊

대학원은 교수와 학생간의 學間的 交流와 對話가 중심이 되는 徒弟敎育制度의 도입과 獨自的 問題解決能力의 教授法(heuristic app.) 등으로 뛰어난 文化 感覺의 素養과 知性을 갖추어 대학원敎育의 秀越性을 제고시킨다. 앞의 〈표 2〉에 예시된 바와 같이 대학과 대학원 교육과정은 一貫性을 유지하게 하되, 대학원 연구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해 진지한 研究文獻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이며 이미 발표된 論文, 單行本을 수집하여 「文獻目錄」을 발간해야 될 것이다.

〈표 3〉 The 21 Courses and their Percentage Selection for each of Three Board Areas

Courses	Areas of concentration		
	Management & Planning (%)	Education (%)	Marketing (%)
1. Administration of travel and tourism services	92 ^a	67 ^a	42 ^a
2. Advertising	17	17	100 ^a
3. Analysis of teaching	0	92 ^a	0
4. Business representation and lobbying	92 ^a	25	42 ^a
5. Communication skills and interpersonal relations	33	83 ^a	33
6. Economics of tourism	83 ^a	42	67 ^a
7. Human behaviour in organizations	50 ^a	83 ^a	42 ^a
8. International marketing	33	8	92 ^a
9. Introduction to information processing	50 ^a	42 ^a	75 ^a
10. Introduction to travel and tourism	75 ^a	67 ^a	83 ^a
11. Marketing in tourism	33	25	100 ^a
12. Marketing research	42 ^a	42 ^a	100 ^a
13. Personal management	75 ^a	67 ^a	25
14. Planning for tourism	92 ^a	50 ^a	42 ^a
15. Principles and problems of public relations	33	25	92 ^a
16. Programme planning in adult education	8	75 ^a	0
17. Systems analysis of tourism services	33	42 ^a	75 ^a
18. Social and physical impact of tourism development	83 ^a	75 ^a	17
19. Socio-psychology of tourism	42 ^a	50 ^a	17
20. Tourism policy analysis	83 ^a	42 ^a	33
21. Transportation in tourism	92 ^a	17	50 ^a

^a One of the 12 courses selected most often

George Washington 大의 Elwood Shafer 교수와 Ingrid van Weenen 院生은 관광 분야에 국제적으로 저명한 12 명의 전문가를 통해 大學院 教育(碩士課程) 방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주로 3 개 전공 분야로 ① 觀光經營·計劃, ② 관광마케팅, ③ 觀光教育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 세계 관광 교육과정에서 가장 선택 빈도가 높은 21 개 과목을 앞의 〈표 3〉과 8 개의 共通科目(core) 등으로 정리하였다.

• Eight Core Courses

1. Practicum
2. Introduction to Travel and Tourism
3. Marketing Research
4. Planning for Tourism
5. Administration of Travel and Tourism Services
6. Economics of Tourism
7. Human Behaviour in Organizations
8. Introduction to Information Processing

5) 教育方法

敎職은 專門職이므로 교육자로서의 철저한 敎職 訓練이 필요하며 또한 관광학의 특성을 가미한 끊임없는 敎育方法의 開發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講話的學習(講義法) 외에 講演式討論(symposium), 公開討論(forum), 視聽覺學習(영화, TV, 슬라이드, 사진, 녹음 등), 野外學習(field study), 見學學習(field trip), 報告學習(report), 特講(guest speaker), team-teaching, John Dewey 의 'learning by doing'에 의한 實習學習, 심지어 관광학도들을 위해 海外實習(familiarization) 등을 통해 實際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觀光學敎授들의 해외 접촉 빈도를 많이 늘려 視角을 넓혀야 된다는 점이다. 적어도 國內 見學 기회를 더욱 활용하여 색다른 經驗과 刺激을 촉발시켜야 될 것이다.

6) 進路

旅行觀光產業은 향후 安人產業, 不安解消產業으로 새로운 미래의 직업으로 有希望한 분야 중의 하나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進路對象은 대체로 다음의 6 개 부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①기관 : 교통/물류/건설/체육부/전국 시·도/한국관광공사/김포공항관리공단/관협 등
- ②산업체 : 대한항공/한국 취항 외국 항공사/항공운송 대리점/선박·철도·자동차/호텔/여행업/외식 산업체
- ③교육 기관 및 연구소 : 대학원 진학(전공, 인접학 전공)/교직/판련 연구소
- ④유학 및 해외 진출 : 차비/교비/국비/해외 취업
- ⑤관련 서비스업 : 관련 매스컴/주한 외국 기관/유통업/기타 서비스업체
- ⑥자영 사업 : 중소기업 규모

진로 결정시 가능한 대졸자의 수준에 맞는 취업 분야를 태해야 될 것이고, 서비스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 학생의 적성과 용모를 출신 학교의 추천서와 함께 面接點數化 하는 것도 이 분야에서는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企業에서도 '敎授推薦制'을 활용하고, 취업 기회와 internship을 위해 產·官·學의 相互補完 관계의 결합이 필요하다.

장차 21 세기를 맞는 한국은 認識 범위와 空間 개념을 좀더 확대하여 수출도 좋지만 海外에 人力を 進出시키는 것에도 注力해야 할 것이다. 향후 취업 전망도 그리 밝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한두 개의 技術을 習得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技術은 世界 萬國 共通語의 같기 때문이다.

*